

D-C, Wacker와 실리콘 중국투자

Silicone에 Fumed Silica 합작 ... Wacker는 Siltronic 공개상장 재추진

Wacker-Chemie가 Dow Corning과 중국에서 Silicone 및 Fumed Silica 합작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대상지역으로 고려한 바 있으나 중국투자로 선회했다.

Wacker는 최근 중국 공장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잠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Wacker가 이미 기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상하이 인근 지역으로 추정된다.

신설 Silicone Monomer 플랜트는 영국 Barry에 있는 Dow Corning의 Siloxane 플랜트(생산능력 20만톤)를 모델로 건설될 방침이다. 신설 플랜트는 양사의 생산공정을 통합 운용할 방침이며, 2004년 3/4분기에 세부적인 합작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합작투자에는 Siloxane과 Fumed Silica 생산이 포함되는데 Dow Corning은 최초로 Fumed Silica 생산을 시도하게 된다. 다운스트림 Silicone 생산에서는 독자적으로 활동 하며 시장에서 경쟁하게 된다.

중국의 Silicone 수요는 연평균 15%이상 신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급부상하고 있다. 중국은 Siloxane 소비량도 10만톤 이상에 달하나 국내공급은 3만톤에 그치고 있다.

Wacker는 Dow Corning과 GE Silicones에 이은 세계 3위의 Silicone 생산기업으로 최근 독일 Nünchritz에서 Fumed Silica 8000톤 플랜트를 가동해 생산능력이 총 3만5000톤으로 확대됨으로써 공동 2위인 Cabot와 함께 선두기업인 Degussa를 추격하고 있다.

Wacker는 건설용으로 활용되는 Redispersible Polyvinyl Acetate Powder도 생산하기 위해 중국 플랜트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

Air Product & Chemicals과 80대20 합작을 추진하고 있는데 완공되면 세계 최대의 Powder 생산기업으로 자리잡게 된다.

Wacker는 유럽과 미국에서의 충분한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중국 Powder 시장 공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근 아시아 뿐만 아니라 동남부 유럽에서도 Redispersible Powder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Wacker는 중국 당국에 VAM(Vinyl Acetate Monomer) 플랜트 건설 허가도 신청했는데 독일 Burghausen의 10만톤 Powder 플랜트 보다는 훨씬 소규모이다. 켄터키 Calvert City에서는 2만톤 플랜트를 가동하고 있다.

한편, Wacker는 Siltronic의 Silicone 와이퍼 사업 공개상장(IPO)을 재추진할 예정이다. 원래 2004년 3월26일을 목표로 Siltronic 공개상장을 추진했으나 마드리드 폭탄테러 사건과 중동사태로 인한 시황 악화로 예정일 2일 전 철회한 바 있다.

Siltronic은 그룹 총매출 25억유로의 35%를 차지하고 있는데, 4억유로 이상을 독일 Freiberg의 와이퍼 플랜트 건설에 투자해 7월 본격가동을 예정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도 2006년 말까지 와이퍼 플랜트를 가동할 계획이다.

Siltronic은 2003년 6670만유로 순손실을 기록함으로써 2002년 330만유로 순손실에 비해 경영이 더욱 악화됐다.

공개상장은 광범위한 구조조정 정책의 일환으로 Wacker는 공개상장을 통해 석유화학제품, 특히 시장점유율 20%의 Silicone과 50%의 Redispersable Powder에 대한 집중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Wacker는 9300만유로 상당을 투자하는 세라믹 사업을 위해 Siltronic의 매각 또는 합작을 추진하고 있다.

Siltronic 공개상장시 Wacker는 약 35%의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건실한 재무구조를 갖추게 된다. Wacker는 공개상장을 통해 부채비율 0%와 10억유로 이상의 자본 그리고 투자에 필요한 충분한 현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화학저널 2004/07/20>